
아세안 이슈 브리프

인도네시아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목 차

국가개요	1
□ 국가 개요	1
□ 교육 주요 지표	1
□ 학제구조 요약	4
I. 개관	7
□ 국가 개관	7
□ 한국과의 관계	8
□ 교육 개관 및 특징	9
II. 교육제도	11
□ 학제 개요	11
□ 고등교육 제도	16
□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31
III. 교육 정책 이슈	32
□ 영유아·초·중등교육 정책 및 이슈	32
□ 고등교육 정책 및 이슈	42
□ 한국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48

□ 국가 개요

항목	내용	비고
국가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앙 집권국가로 38개 주, 416개 군, 98 시로 지방행정구역 구성
수도	자카르타(Jakarta)	누산따라 신수도(IKN)으로 수도 이전 진행중이나 표류중
공식 언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영어, 중국어, 타밀어 등 다언어 교육환경 병존
인구	283,487,931명(2024, World Bank)	0~14세 인구 69,731,786명, 전체의 약 25%
정치체제	민주주의(대통령제)	5년 중임제(정부통령)
고등교육 거버넌스	일반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부 이슬람 고등교육 기관: 종교부	이슬람 교육에 대한 자율성 제도적 존중하에 거버넌스 이원화
고등교육 특징	일반적으로 국립대학(PTN), 사립대(PTS)로 구분되며	사립대학에 비해 국립대학의 중요성 큼

□ 교육 주요 지표

학령인구 수 (초중등/고등)	초중등: 29,156,796명(초등), 14,236,454명(중등) 고등: 13,766,724명
문해율	성인 문해율 (15세 이상): 96.0% (2020년)
	청년 문해율 (15~24세): 93.8% (2022년)
교육 예산 규모	GDP 대비 총 교육예산 비율 (%): 1.3% (2023년)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예산 비율 (%): 13.9% (2022년)
고등교육 이수율 ※25~34세 인구 기준	43.0% (2022년)

교육재정	초·중등 교육 예산 (1인당 GDP 비중): 13.5% (초등학교), 10.7%(중학교), 11.8%(고등학교)(2015년)	
	고등교육 예산 (1인당 GDP 비중): 21.0%	
	기타 교육 분야 : 약 45%는 유아교육, 교육행정, 정책사업, 교사연수 등에 사용. 타국에 비해 직접교육 예산으로 사용되는 비율 낮음.	
학업 성취도 (PISA 최소 숙달도 도달 비율)	과학	396점 (도달비율: 34%)
	읽기	371점 (도달비율: 25%)
	수학	376점 (도달비율: 18%)
학교 밖 아동·청소년 비율(2023)	초등교육: 2.16%, 전기 중등교육: 8.85%, 후기 중등교육 : 32.93%	

▶ 출처: <https://datatopics.worldbank.org/education/country/indonesia>;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Education%20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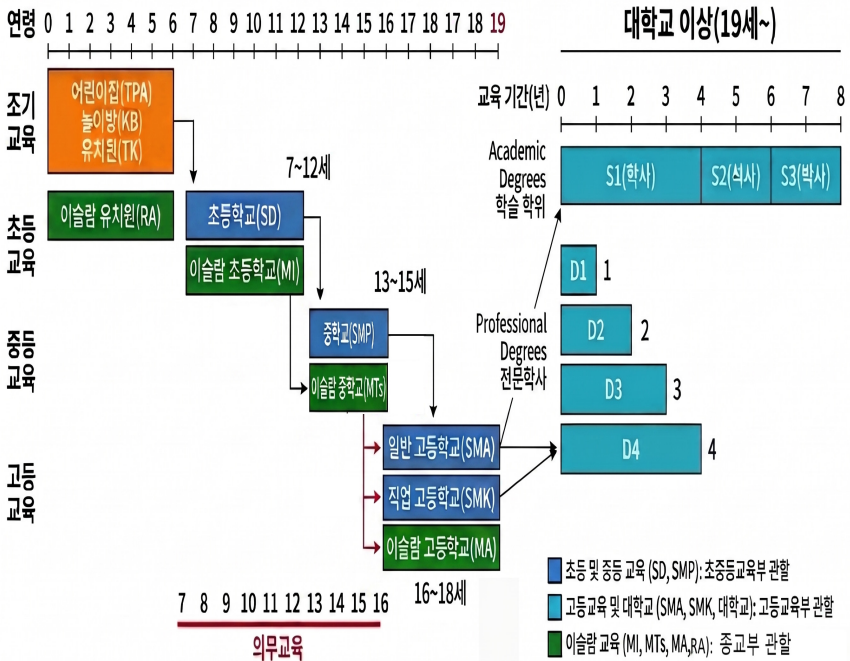
- 학령인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초·중등학교는 약 2,916만 명, 고등학교는 약 1,377만 명으로 추정되며, 합계출산율이 감소(2018년 2.3명, 2023년 2.1명)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 15세 이상 성인 문해율은 2020년 96%로, 2015년 95.2%에서 소폭 상승하였는데, 15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 문해율은 2020년 99.8%에서 2022년 93.8%로 대폭 감소했다.
- 이러한 수치 변화는 (1)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점 (2)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해율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통계상의 오류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며,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

- 고등교육 이수율 역시 UNESCO 기준 2017년 기준 63.1%에서 2022년 43%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당시 대학진학률이 43%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에서 대학진학률로 통계 준거가 변화했다고 봐야 한다.
- 한편, 교육예산 규모는 GDP(국민총생산) 기준 1.3%(2023년), 정부 총지출 기준 13.9%(2022년 기준)를 각각 기록하였는데, 10년 전인 2013년 교육예산 규모가 GDP의 3.4%, 정부 총지출의 16.3%인 것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 이러한 교육예산 비중의 상대적 하락은 무엇보다도 조코위 정부의 신수도 이전사업, 빠라보위 정부의 청소년 무상급식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부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크다.
- 마지막으로 UNESCO가 확보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1인당 GDP 대비 교육예산 지출은 초등학교 13.5%, 중학교 10.7%, 고등학교 11.8%, 대학교 이상 21.0%이다.
-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비교한다면 초중등(16% 수준)과 고등교육(26% 수준) 모두 1인당 GDP 대비 교육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제구조 요약

- 인도네시아의 학제 구조는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모든 지방에서 6년의 기초 초등 교육, 3년의 중학교 교육(초기 중등 교육), 3년의 고등학교 교육(후기 중등 교육), 그리고 4년의 학사 학위 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초등 교육과 초기 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1> 인도네시아 학제 구조 도표



출처: 필자 구성

- 또한 일반적으로 초등교육 이전 PAUD(Pendidikan Anak Usia Dini, 영유아교육)로 통칭되는 조기 학습프로그램이 있다.
- 한편, 중학교 졸업 직전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 일반·종교·직업교육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먼저 일반고등학교(Sekolah Menengah Atas, SMA)에 진학하여 졸업한 학생들은 각 대학 학사학위(S1)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S1은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가 전문화, 고도화 되면서 화이트칼라 노동시장과 국가공무원 직렬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 S1을 취득한 대학 졸업생은 한국의 석사과정과 동일한 마기스터 (Magister, S2) 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며, S2를 취득한 뒤 한국의 박사과정과 동일한 독토르(Doktor, S3)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 직업고등학교(Sekolah Menengah Kejuruan, SMK)를 선택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응용 고등교육 전문학사 프로그램인 디플로마(Diploma)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디플로마는 학업 기간과 기술숙달 정도에 따라 1년제 과정 D1부터 S1에 준하는 자격을 얻는 D4까지 범주화되어 있다.
- 한편, 뽀산뜨렌(Pesantren)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이슬람 종교 교육시설이 네덜란드 식민지배 당시 오랫동안 교육 기능을 담당해 온 역사적 사실과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라는 특징은 이슬

람 교육체계를 인도네시아 학제 구조의 공식적인 구성요소로 인정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부(Kementarian Agama)가 독립 이후부터 이슬람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 이슬람 교육기관은 이슬람 교육, 아랍어, 도덕교육과 같은 종교 관련 과목을 추가로 포함하며, 교육 기간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주관부처는 비이슬람 교육 시스템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종교부로 오랫동안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최근 뿌라보워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학교 이전 비이슬람 교육은 초중등교육부가, 그 이후는 고등교육부가 담당하는 삼원화 체계가 구축되었다.

□ 국가 개관

- 인도네시아는 약 30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수카르노(Sukarno)와 모함마드 하따(Mohammad Hatta)를 각각 정·부통령으로 하는 독립국가로 출범했다.
- 현재 인도네시아는 면적 약 190만km², 인구 2억 8천3백만 명의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이자,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다.
- 이슬람을 국교로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일부 지역의 분리독립을 우려하여 이슬람의 국교화 대신 뽀짜실라(Pancasila, ‘다섯개의 기둥’)¹⁾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했다.
-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재임: 1945-1968)와 수하르토(재임: 1968-1998)의 장기집권 이후 민주화를 거쳐 5년 중임제 개헌에 바탕을 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체제로 전환되었으며, 현 정·부통령은 2024년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와 기브란 라카 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이다.

1) 유일신에 대한 믿음,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도주의, 인도네시아의 통합, 대의제와 합의에 따른 민주주의, 전 국민을 위한 사회적 정의

□ 한국과의 관계

-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1966년에 영사급, 1973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반서구주의 외교 노선에 기인한다.
-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아세안 국가 가운데 최초로 2006년과 2019년 각각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2026년 4월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는데, 이는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최상위 외교관계이다.
- 한편, 경제 분야를 포함한 민간 외교관계도 눈부신 성장을 거두어 2020년대 양국 간 수출입 규모는 250억 달러 수준을 기록중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무역상대국이다.
-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2022년 기준 약 5,100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 ODA 수혜국 161개국 가운데 5위 규모이다.
- 문화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Pop과 K-Drama를 바탕으로 한류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부 계층(교육수준이 높은 무슬림)을 제외하고 한류는 전 계층이 소비하는 문화컨텐츠가 되었다.
-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약 58,000명) 가운데

2,500여 명 정도가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교육원이 개원한 이후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한편,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은 500명 수준이다.

□ 교육 개관 및 특징

- 인도네시아의 학제 구조는 모든 지방에서 2~3년간의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6년의 기초 초등 교육, 3년의 중학교 교육(초기 중등 교육), 3년의 고등학교 교육(후기 중등 교육), 그리고 4년의 학사 학위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초등 교육과 초기 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 연간 학사일정은 7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는 1학기과 1월에 시작하여 6월에 종료하는 2학기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 교육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유아 교육부터 학사 및 대학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교육기관이 일반 교육기관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 이슬람 교육기관과 일반 교육기관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양 교육기관 사이 이동도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다.
 - 또한 이슬람 교육기관은 이슬람 교육, 아랍어, 도덕교육과 같은 종교 관련 과목을 추가로 포함하며, 교육 기간은 유치원부터 고

등학교까지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 이는 인도네시아가 독립 당시 무슬림 지식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이슬람 국가로 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슬람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일종의 타협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한편, 운영 주체에 따라 교육기관은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으로 나뉘는데,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사회적 지위와 연구성과,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판 등이 압도적으로 높다.
- 뿌라보워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주관부처는 비이슬람 교육 시스템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종교부로 오랫동안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출범 이후에는 정부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중학교 이전 비이슬람 교육은 초중등교육부가, 그 이후는 고등교육부가 담당하는 삼원화 체계가 구축되었다.
- 그러나 뿌리 깊은 부처 간 경쟁이 삼원화 체계가 구축된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여기에 비대해진 행정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삭감된 교육예산으로 인해 교육행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학제 개요

- 1945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체계의 재원을 조달하고 이 체계를 마련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이에 관해 2024년 헌법재판소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국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비용도 부담할 헌법적 의무를 지님을 재확인하였다.
- 이러한 헌법적 의무에 뿌리를 둔 인도네시아의 교육 시스템은 광대한 군도의 지리적, 종교적,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탐색하면서, 동시에 국민통합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2003년 제정된 국가교육법 2003년 법률 제20호 「국가교육체계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Nomor 20 Tahun 2003 tentang Sistem Pendidikan Nasional) 에 따라 초등과 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중앙정부는 국가교육법 개정 작업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미취학 아동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 교육제도로 편입을 추진 중이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 2003년 제정된 국가교육법 2003년 법률 제20호 「국가교육체계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Nomor 20 Tahun 2003 tentang Sistem Pendidikan Nasional) 에 따라 초등과 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중앙정부는 국가교육법 개정 작업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미취학 아동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 교육제도로 편입을 추진 중이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 교육제도를 서구식 교육제도와 동등하게 인정하면서, 이를 정규교육 체계과정에 편입했지만, 그 관리 주체는 교육당국이 아닌 종교부(Kementerian Agama, 이하 종교부)라는 것이다.
 - 이러한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 사이의 행정적 분리는 독립 직후부터 진행된 인도네시아의 국가 성격과 체제에 대한 격렬한 정치적 논쟁의 결과이다.
 - 19세기 말부터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하던 네덜란드가 서구식 교육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대표되는, 이른바 윤리정책(Ethical Policy)을 시행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진보적이며 젊은 무슬림 지식인들은 이슬람 교육에도 서구의 수업방식, 예를 들어 현대화된 시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업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 한편, 수백 년간 특히 자바 지역의 교육을 책임져오던 이슬람

올범 학자들인 끼야이(kyai) 혹은 올라마(ulama)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이슬람 교육기관인 뽀독 뽀산뜨렌(pondok pesantren)은 이슬람 올범과 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도제식 수업방식을 고수하였다.

- 독립 이후 이들 전통 이슬람 엘리트들은 교육과 사회문제에 있어 이슬람의 독자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정부부처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1946년 1월 종교부가 설립되었다.
- 종교부는 현재까지 나흘다퐁 올라마(Nadhlatul Ulama, NU)와 무함마디야(Muhammadiyah) 등 무슬림 단체와 함께 이슬람 유치원(Raudhatul Athfal,, RA), 초등학교(Madrasah Ibtidaiyah, MI), 중학교(Madrasah Tsanawiyah, MTs), 일반계 고등학교(Madrasah Aliyah, MA), 직업계 고등학교(Madrasah Aliyah Kejuruan, MAK)등 방대한 이슬람 학교 네트워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작동하고 있다.
- 모든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자유롭게 일반 교육과 이슬람 교육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슬람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혹은 그 반대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 영유아 및 초등교육

- 영유아교육(PAUD)은 대체로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Taman Kanak-kanak, TK)과 이슬람 유치원(Raudhatul Athfal, RA)으로 대표되며, 이외에도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Kelompok Bermain, KB)이 유치원 이전 교육기관으로 자리잡

고 있다.

- 이 단계의 학습은 주로 놀이에 기반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소통, 창의성, 자립성,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조절, 운동 협응성과 같은 아동의 기초 발달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초등교육은 정규 의무교육의 첫 단계로, 통상적으로 일반계 초등학교(Sekolah Dasar, SD) 또는 이슬람 초등학교 (Madrasah Ibtidaiyah, MI)에서 6년제로 실시된다.
- 초등교육은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필수 역량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며, 동시에 과학, 사회, 시민교육, 예술, 체육에 대한 기초 지식 함양에 중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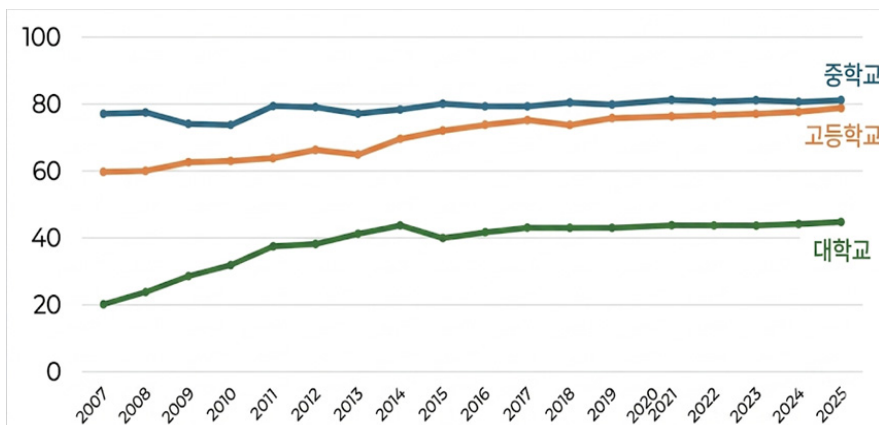
○ 중등교육

- 중등교육은 초등교육 다음 단계로, 3년의 중학교 교육과 3년의 고등학교 교육으로 나뉘며 앞서 언급한대로 고등학교는 일반·종교·직업교육 경로 중 선택이 가능하다.
- 중학교 교육은 일반계 중학교(Sekolah Menengah Pertama, SMP) 또는 이슬람 중학교(Madrasah Tsanawiyah, MTs)로 나뉜다.
-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핵심 공통 과목을 유지하면서도 물리학, 생물학 등의 개별 과학 과목과 세계사, 지리, 영어 등의 심화 인문/사회과학 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다.
- 최근까지 중학교 진급과 졸업은 표준화된 객관식 시험인 국가

고시(Ujian Nasional, UN)에 의존했으나 2015년 이후 수행평가와 내신으로 대체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사실상 삶의 궤적이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인데,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고등학교와 산업현장 투입을 위한 직업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일반고등학교 대비 직업고등학교인 SMK와 MAK 진학률은 연평균 12-14% 증가했는데, 이는 청년 실업을 줄이고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후에 언급할 직업 전문학사인 디플로마(Diploma) 과정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학교 진학률과 고등학교 진학률이 최근 80%대에서 수렴하면서 더 이상 증가하기 않고 있는데, 이는 기초교육 단계를 벗어나면서 시스템을 이탈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조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20%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상당수의 인도네시아 청소년은 한국 정부의 교육협력프로그램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그림 2> 교육기관별 학령인구대비 등록율 추이 (2007-2025)



출처: Statistics Indonesia (2025)

□ 고등교육 제도

○ 고등교육 기관 개요 및 특징

- 인도네시아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은 인도네시아 정규교육의 최고 단계로, 대학교, 각 분야 전문가등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아카데미, 기능대학(politeknik)에서 제공하는 학문 중심 고등교육과 직업·응용 고등교육으로 구성된다.
- 먼저 학문 중심 고등교육은 세 가지 주요 학위 단계, 즉 4년 과정의 학사(Sarjana/S1), 2년 과정의 석사(Magister/S2), 4년 이상 과정의 박사(Doktor/S3)로 구성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교(Universitas), 기술, 예술, 농업, 종교학 등 특정 지식 분야 내 관련 학문군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특수목적대학(Institut, 예: 반둥 공과대학교, 보고르 농과대학교), 경제학, 세무학, 정보학, 통계학, 신학 등의 단일 학문 혹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단과대학(Sekolah Tinggi, 예: 국립통계단과대, 국립세무단과대, 국립정보단과대 등), 단일 혹은 소수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Akademi, 예: 사관학교, 빠레 외국어 아카데미 등)이 있다.
- 또한 고등교육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대학교(Perguruan Tinggi Negara, PTN), 사립대학교(Perguruan Tinggi Swasta, PTS),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기관(Perguruan Tinggi Kedinasan Daerah, PTKD)로 나눌 수 있는데, PTKD는 대부분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둔다.
-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내 석사학위 소지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0.31%인 약 85만 명, 박사학위 소지자는 불과 0.02%인 6만 9천여 명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이웃 국가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생산가능인구의 약 2.4%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비하면 크게 낮다²⁾.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대학교(UI)와 가자마자대학교(UGM)를 비롯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대학교의 교원 역시 석사학위 소

2) <https://news.detik.com/kolom/d-7166304/mengejar-jumlah-dan-kualitas-lulusan-s2-dan-s3> (검색일: 2026년 5월 30일). 참고로 한국은 2026년을 기준으로 매년 2만 명씩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

지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³⁾.

-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적은 고학력 인구로 인해 학문과 고등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연구 인력의 만성적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편, 직업·응용 고등교육은 학업 기간과 기술적 숙달 정도에 따라 1년 과정(D1)부터 4년 과정(D4)까지 제공되며, 특히 D4는 학술 학위인 S1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Sarjana Terapan 칭호를 부여한다.
- 직업·응용 고등교육기관은 응용과학 및 실습 위주의 교육기관인 기능대학(Politeknik)과 지역 내 직업 교육기관인 커뮤니티 아카데미(Akademi Komunitas)가 대표적이다.
- 이들 기관은 또한 최장 7년의 학업 기간 내에 최소 42학점을 이수한 숙련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실무적 최고 지위에 해당하는 응용 박사(Doktor Terapan, S3 Terapan)학위를 수여한다.

○ 입시제도

-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국립대학(Perguruan Tinggi Negeri, PTN)은 사립대학(Perguruan Tinggi Swasta, PTS)보다 학문적 명성과 우수학생 선발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3) 다만, 박사학위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취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부터 교수(professor)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러한 요건에서 자유로운 강사와 강의전담교수를 포함하는 교원(dosen)이 대부분이다.

- 이는 정부의 지원이 국립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의 소득 연동 등록금(Uang Kuliah Tunggal) 제도로 인해 가정의 소득에 따라 매우 저렴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어 소득 수준이 낮지만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이 압도적 비율로 국립대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대학교(UI), 가자마다대학교(UGM), 반둥공과대학교(ITB)를 비롯한 대학교들은 모두 국립대이며, 정부기관인 인도네시아 국가대학평가인증위원회(BAN-PT)에서 최고(Unggul) 수준의 등급을 받는 대학 역시 국립대의 비중이 훨씬 높다.
-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립대 입시는 크게 한국의 내신 전형인 SNMPTN (Seleksi Nasional Masuk Perguruan Tinggi Negeri)과 한국의 수능시험 성적에 바탕을 둔 정시에 준하는 SBMPTN (Seleksi Bersama Masuk Perguruan Tinggi Negeri, 국가통합시험전형)으로 나뉘는데, 이 두 전형 모두 2022년 초중고 독립커리큘럼(Kurikulum Merdeka, KM)' 도입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다.
- 학교, 교사, 학생에게 교육과 학습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당시 인도네시아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학생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KM은 2021년 일부 선도학교와 최고 수준 직업고등학교(SMK Pusat Keunggulan)등 전국 약 2,500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

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 K-13과의 병행 기간을 거쳤다.

- KM은 1) 학교 사정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 설계, 2) 필수 역량 중심의 심층 학습, 3) 인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정(K-13)과의 차이점을 보인다.
- 구체적으로 KM은 교사에게 국가가 정한 핵심 성취 기준(Capaian Pembelajaran) 내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지역적 특성에 맞춰 교수법, 학습 자료, 학습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과하였으며, 학교장에게도 학교의 비전과 여건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다.
- 또한 문해력과 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증진을 목표로 불필요한 학습 내용을 줄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도 진행 대신 중요한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KM은 인도네시아 국가이념인 Pancasila⁴⁾에 기반한 이상적인 학생상을 신앙심, 글로벌 다양성, 협동, 창의성, 비판적 이성, 자립심이라는 6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수업시간의 20~30%를 교과 경계를 넘어선 실용적인 주제(예: 환경, 민주주의, 창업 등에 대해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4)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당시 선포된 Pancasila(‘다섯개의 기둥’)는 1) 유일한 신에 대한 믿음, 2) 인본주의, 3) 인도네시아의 하나 됨, 4) 합의와 대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5) 사회 정의를 의미한다.

- 이를 위해 일반 고등학교(SMA)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자신의 적성에 따른 전공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초등학교에서도 과학과 사회가 '자연사회과학(IPAS)'로 통합되어 학생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게 되었다.
- 먼저 내신 전형인 SNMPTN은 성취도기반전형(Seleksi Nasional Berdasarkan Prestasi, SNBP)로 명칭이 바뀌는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성적과 교내외 수상실적을 종합하여 지원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되지만 (1) 주요과목만 반영하던 것과 달리 모든 교과목의 평균 성적 50% +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성적과 수상 실적 50% 합산, (2) 문·이과 구분 폐지 (3) 전국 학력평가(UN) 성적에 연동되어 각 학교별로 입학 쿼터 혹은 등급을 부여하던 관행이 폐지되었다.
- 이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교육기조에 맞는 인재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SBMPTN은 시험기반전형(Seleksi Nasional Berdasarkan Tes, SNBT)로 개정되었으며, 매해 4월 혹은 5월에 치러지는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학업능력시험의 내용이 문/이과에 해당하는 각 교과목의 지식수준을 묻는 것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1) 잠재적 인지 능력 (2) 수학적 추론 (3) 인도네시아

어 문해력 (4) 영어 문해력으로 평가 영역을 대폭 축소하여 교차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연중 수시 모집을 채택하고 있는 (명문) 사립대(예: BINUS 대학교, 텔콤 대학교)의 경우에도 국립대 입학전형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대 내신 전형 시작 이전에 학업 성취도 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한 선지원을 유도하고, 정시지원 탈락자들의 학업능력시험 성적을 그대로 입학사정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 고등교육기관 현황 및 관찰 부서

- 202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학문중심 고등교육기관, 즉 일반대학은 총 2,840개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불과 127개교(4.5%)는 국립대학교(PTN)이며, 나머지 절대다수인 2,713개교는 기업과 종교재단이 주축인 사립대학교(PTS)이다.
- 한편, 국립대의 38.6%(49개교), 사립대의 46.7%(1,326개교)가 자바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립대는 과거 수하르토 권위주의 정권 당시 지역 경제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민주화 이후 분권화에 발맞추어 전략적으로 비자바 지역에 대거 신설되었다.
- 국립대와 (비이슬람) 사립대는 고등교육부가 관찰하나, 국립 이슬람 고등교육기관(PTKIN, 예: 인도네시아 국제이슬람 대학교)

과 사립 이슬람 고등교육기관(PTKIS, 예: 무함마디아 대학교)은 초, 중,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종교부가 관할한다.

- 국립 이슬람 고등교육기관의 입시는 국립대학교의 그것과 동일한 시기에 진행하나, 내신전형과 정시전형 모두 수험생의 이슬람 관련 지식수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사립 이슬람 고등교육기관은 종교지도자 추천 전형 등 각 기관별 다양한 입시전형을 운영한다.

○ 고등교육 학기제, 학점제, 성적체계 등

-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기관의 학년은 2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는 매년 9월에 시작하여 12월 말이나 이듬해 1월에 종강, 2학기는 2월에 시작하여 5월 말, 혹은 6월에 종강한다.
- 학사일정은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이슬람 명절인 르바란(Lebaran) 축제일에 맞춰 방학 및 개강 일정이 매년 조금씩 변동된다.
-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주당 강의 시간에 따라 'SKS(Satuan Kredit Semester)'라는 학점 이수 단위를 사용하며, 학사 학위(S1) 취득을 위해서는 보통 144~1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고등교육 질 보장 제도

-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공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인한 평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우선 유아, 기초 및 중등교육 국가 인증 위원회(Badan Akreditasi Nasional Pendidikan Anak Usia Dini, Pendidikan Dasar, dan Pendidikan Menengah, BAN-PDM)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안/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품질을 심사하고 국가 공인 인증(Akreditasi)을 부여한다.
- 과거에는 유아/평생교육 인증원(BAN-PAUD dan PNF)과 초중고교 인증원(BAN-S/M)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2023년 교육부장관령에 의해 통합되었다.
- BAN-PDM은 국가 교육 표준에 따라 각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 교육 과정, 경영 상태 등을 현장 실사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에 A등급(최우수), B등급(우수), C등급(보통), TT(미인증) 등의 등급을 부여한다.
- BAN-PDM의 등급은 단순히 해당 학교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국립대의 내신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쿼터)을 정하기 때문에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큰 관심을 보인다.
- 이는 독립 커리큘럼(KM) 도입 이후 교육 수준이 낮은 지방의 고등학교들이 자기 학교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일제히 내신 점수를 부풀리자, 이를 막으려는 조치이다.
- 한편, 모든 국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직업교육기관 포함)

역시 1994년 설립된 국가대학평가인증위원회(BAN-PT)의 심사를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BAN-PT 인증이 없으면 해당 기관은 합법적 운영, 졸업생 배출, 또는 졸업증서(diploma) 발급이 불가능하다.

- BAN-PT는 과거 유일한 고등교육 평가 및 인증기관이었으나, 최근 학과평가 기능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전공별 비영리 단체인 독립인증기관(Lembaga Akreditasi Mandiri, LAM)이 담당한다(예: 경영학과 평가: LAMEMBA, 의학과 평가: LAM-PTKes).
- BAN-PT의 인증 체계는 과거 A, B, C의 3등급에 바탕을 두었으나, 최근 Unggul (최우수, 국가 표준을 훌쩍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대학/학과), Baik Sekali (매우 우수, 국가 표준을 상회하는 훌륭한 수준), Baik (우수,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기본 수준, Tidak Memenuhi Syarat (미달, 기준 미달로 인증 취소 위험)으로 나뉜다.
- BAN-PT의 인증 등급은 국가공무원이나 국영기업의 지원 자격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채용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 2026년 현재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은 평가대상 3,888개교 가운데 총 242개교(약 6.2%)이며, 이 중 125개가 사립대, 117개교가 국공립(이슬람)대학교이다.
- 한편, 미달 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은 65개교(약 1.7%)이며, 모두 사립 일반 혹은 이슬람 교육기관이다.

- 따라서 BAN-PT의 인증 결과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국립대학교/국립이슬람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고등교육 국제화(1): 인도네시아인 해외 유학

- 인도네시아인의 해외 유학의 역사는 19세기 말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점차 증가한 젊은 무슬림 지식인들의 중동 지역 유학과 20세기 초 서구식 교육제도의 확산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 유학생들의 증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또한 수하르토 정권 등장 이후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제도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유학 출신 경제관료 및 학자를 일컫는 이른바 ‘버클리 마피아(Berkeley Mafia)’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 그러나 국민의 절대 대다수에게 유학은 장학금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진학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없으며, 소수의 외교관, 사업체 해외 주재원, 기타 해외 고용노동자 혹은 화인을 포함한 소수의 자본가와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 일례로 조코위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전 자바의 솔로(Solo)시에서 가구 유통업에 성공한 뒤 두 아들인 기브란(Gibran)과 카에상(Kaesang)을 각각 호주와 싱가포르에 유학을 보냈다.
- <표 1>에서 나와 있듯이,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출신 학부과정 이상 유학생은 55,638명이며, 이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2위

규모이다(1위: 베트남, 약 13만 7천 명).

- 이웃 국가이자 고등교육 수준이 높은 호주 유학생이 전체의 23.1%인 12,852명으로 가장 많으며, 또 다른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 9,874명(17.7%), 미국 유학생이 3위인 8,039명(14.4%)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 인도네시아인 해외 유학생 현황 (대학생 이상)

순위	국가	유학생 수 (명)	비율 (%)
1	호주	12,852	23.1
2	말레이시아	9,874	17.7
3	미국	8,039	14.4
4	이집트	5,937	10.7
5	일본	5,095	9.2
6	영국	3,402	6.1
7	독일	2,832	5.1
8	사우디아라비아	1,934	3.5
9	캐나다	1,362	2.4
10	한국	1,078	1.9
11	프랑스	846	1.5
12	뉴질랜드	702	1.3
-	기타 국가	1,685	3.0

출처: <https://databrowser.uis.unesco.org/> (검색일: 2026년 6월 1일).

- 한편, 수니파 이슬람 학문과 샤리아 해석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갖는 알 아르하르(Al-Azhar)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5,937명, 10.7%)와 이슬람의 중심지인 사우디아라비아(1,934명, 3.5%)에 유학을 가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도 상당수

존재한다.

- 한국으로 유학가는 인도네시아 학생은 2021년 기준 10위(1,078명)이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과 국내 대학 자체 유학제도 등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단기어학연수 과정생을 포함한 재한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약 2,500여명 수준이다⁵⁾.

○ 고등교육 국제화(2): 인도네시아 해외 유학생 유치

- 외국인 학생의 인도네시아 대학으로의 유학은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에서 학문적인 명성을 인정받은 상위권 국립대와 사립대를 중심으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 또한 각 대학에 부설된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과정(BIPA)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르마시스와(Dharmasiswa)를 비롯한 후원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단기 어학연수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인도네시아 전국 367개 대학에 약 13,5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표 3> 참고).
- 이 가운데, 약 46%(6,137명)가 BIPA를 비롯한 단기연수과정 등록생이며, 학부과정 약 29% (3,900명), 석사과정 9.4% (1,260명),

5) <https://haninpost.com/archives/69390> (검색일: 2026년 6월 10일).

박사과정 1.9% (255명)을 차지한다.

<표 2> 인도네시아 국내 대학별 유학생 유치현황 (2021년 기준)

순위	대학교	직업·응용	학부 (S1)	석사 (S2)	박사 (S3)	단기 (여학)	인턴십	전문직 연수	교환 학생	합계
1	11월 10일 공과대학교		65	63	9	1,564	11		81	1,793
2	수라바야 대학교		5			1,150			6	1,161
3	텔콤 대학교	1	36	17		756			57	867
4	아이르랑가 대학교	1	83	122	49	509	2	6	80	852
5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교		51	9	3	747		1	5	816
6	타루마나가라 대학교		2			354				356
7	디포네고로 대학교		15	66	8	161	1		48	299
8	인도네시아 대학교		42	68	8	157	1	1	3	280
9	수마트라 우타라 대학교	1	140	1	2			124		268
10	가자 마다 대학교		58	70	26	2	1	26	53	236
총계	367개 대학	264	3,900	1,260	255	6,137	82	564	1006	13,468

출처: <https://beritajatim.com/jumlah-mahasiswa-mancanegara-its-terbanyak-di-indonesia> (검색일: 2026/06/02).

- <표 2>에서 소개된 유학생 유치 상위 10개 대학교는 모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학문적 명성이 높으며, 이 가운데 6개교(11월 10일 공과대학교, 아이르랑가 대학교, 디포네고로 대학교, 인도네시아 대학교, 수마트라 우타라 대학교, 가자

마다 대학교)는 국립대, 4개교(수라바야 대학교, 텔콤 대학교,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 타루마나가라 대학교)는 사립대이다.

- 국립대가 주로 정규 학위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사립대는 단기과정 유학생의 비중이 높다.
- 한편,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기준 동티모르 출신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중국, 일본 순이었다.
- 상당한 규모를 가진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유학생과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의 존재는 향후 양국 인적 교류의 증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국적별 인도네시아 유학생 현황 (2017년 기준)

순위	출신 국가	학생 수
1	동티모르	2,107
2	말레이시아	1,217
3	태국	659
4	대한민국	524
5	중국	456
6	일본	217
7	독일	156
8	네덜란드	139
9	프랑스	136
10	호주	135
총 유학생		6,967

출처: Siti (2021)⁶⁾

6) The Contribution of Indonesian for Foreign Speaker(Bahasa Indonesia bagi Penutur Asing/BIPA) in Islamic Universities for Developing World Civilization

□ 평생교육/직업교육

○ 학력인정프로그램(Paket)

-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언급한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청소년과 학업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인 Paket을 운영 중이다.
- Paket은 크게 초등교육수준인 A, 중학교 수준인 B, 고등학교 수준인 C의 3단계로 구성된다.
- 특히 Paket C는 특정 과학이나 직업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공부하는 정규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고등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일반화된 7개의 핵심 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며,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과 법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수료증(Ijazah Paket C Setara SMA)을 수여받는다.
- Paket은 지역사회 학습 센터, 공부 모임, 교육훈련기관, 또는 무슬림 단체가 운영하는 majelis taklim(이슬람 학습모임)이 주도하며, 정규 학교보다 더 유연한 학습 일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 영유아 · 초 · 중등교육 정책 및 이슈

○ 중고등학교 진급 및 진학 시스템 변화

- 인도네시아는 2021년을 기점으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 시험(Ujian Nasional, UN)을 바탕으로 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 과거 상위 학년 진급은 원칙적으로 진급에 반영되는 내신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소 성취 기준(Kriteria Ketuntasan Minimal, KKM)에 미달(주로 60점 기준)하면 유급될 수 있으나, 이는 고등학교에서 흔했으며,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거의 없었다.
- 한편, 학업성적이 특별히 높은 학생들은 교사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월반할 수 있었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의 경우 2021년 이전에는 각 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치르는 UN의 성적이 결정적이었다.
- UN은 초등학교는 3과목(인도네시아어, 수학, 자연과학), 중학교 4과목(인도네시아어, 수학, 자연과학, 영어), 고등학교 4과목(필수과목: 인도네시아어, 영어, 수학, 선택과목: 문과/이과/직업 트랙별 각 1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UN 결과를 바탕으로 진학할 학교를 결정했었다.

- 따라서 과거 한국의 비평준화 체제와 같이 지역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사이에는 서열이 존재했으며, 지역 내 명문인 제1 중학교와 제1 고등학교는 사실상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사교육 과열과 더불어 획일적인 평가 잣대로 인해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시험 준비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 교육 기관들의 반발이 지속되었다.
- 이에 2021년 당시 조코위 정부는 UN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면서, 각 학교 졸업기준을 1) 학교 자체 교육과정 충족 여부 2) 학교 내신 기준 통과 3) 학교생활 및 태도 등으로 지정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였다.
- 또한 학교 내신 시험 방식도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지필/온라인 시험등 다양화하여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한편, 정부는 UN이 폐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대안인 국가 평가(Asesmen Nasional, AN) 체계를 도입했는데, AN은 전체 학생 가운데 학교별 표본 학생을 선발하여 읽기, 쓰기, 문해력, 인성, 학습 환경과 같이 개인 수준의 학생평가 대신 학교의 교육품질을 측정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었다.
- UN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진학방식도 크게 변화하여, 각 학교 신규입학생의 최소 50%는 학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배정, 즉 구역 시스템(sistem zonasi)을 의무화했으며, 나머지 입학생들의 상당수(최소 10%)는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에게 배정하였다.

- 여기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내신성적과 교외 수상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교장 재량으로 신입생의 10~30%는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성과 중심의 학생 선발 과정을 제한적으로나마 존치하였다.
- 또한, 각 과목별 최소 성취 기준을 넘지 못하면 유급이 가능했던 과거에 비해 보충수업을 통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기회 부여와 다면평가 등을 통해 학교장 재량으로 태도 불량과 출석을 저조 등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한 최대한 진급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진학 및 진급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는 획일적인 평가 잣대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최대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크게 높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정책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그러나 여전히 교육환경이 우수한 명문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한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명문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친인척 집에 자녀들을 위장전입 시키거나 심지어는 주소지를 매매하는 사례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

○ 만성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1):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

구(TIMSS)

-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TIMSS)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수학 및 과학 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로 1995년부터 4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5회 참여하였으나 2019년과 2023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참여 기간 내에 국제 평균(500점)을 크게 밑도는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 <표 4>에서 자세히 나와있듯이, 인도네시아는 TIMSS 참여기간 동안 수학은 34위(1999년), 34위(2003년), 36위(2007년), 38위(2011년), 44위(2015년)를, 과학은 32위(1999년), 36위(2003년), 35위(2007년), 40위(2011년), 44위(2015년)를 기록하였다.

<표 4> 인도네시아 TIMSS 결과 (1999 - 2015)

	수학 (등수)	과학 (등수)	비고
1999 (중 2)	403 (34/38)	435 (32/38)	말레이시아 (수학 16위, 과학 22위), 태국 (수학 27위, 과학 31위), 필리핀 (수학 36위, 과학 36위)
2003 (중 2)	411 (34/45)	420 (36/45)	말레이시아 (수학 10위, 과학 20위) 필리핀 (수학 41위, 과학 42위)
2007 (중 2)	397 (36/49)	427 (35/49)	말레이시아 (수학 20위, 과학 21위), 태국 (수학 29위, 과학 25위)
2011 (중 2)	386 (38/45)	406 (40/45)	말레이시아 (수학 26위, 과학 32위) 태국 (수학 28위, 과학 25위)
2015 (초 4)	397 (44/49)	397 (44/49)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불참

- 이러한 결과는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 보다는 낮고, 필리핀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수학과 과학 성적과 순위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경제성장애과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만성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2):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독해, 수학, 과학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고 해당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평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고 있다.
- PISA는 단순히 암기한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닌, 주어진 자료와 지식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국제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PISA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3년마다 반복 시행(2021년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2022년에 시행)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2003년부터 참여 중이다.
-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PISA 성적 역시 TIMSS 와 마찬가지로 참가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계속 유지 중이다.

- 더욱이 수학, 과학, 읽기 모두 참가국이 늘어날수록 순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그림 3>에서 나와 있듯이,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과의 격차 역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벌어지고 있다.

<표 3> 인도네시아 PISA 결과 (2003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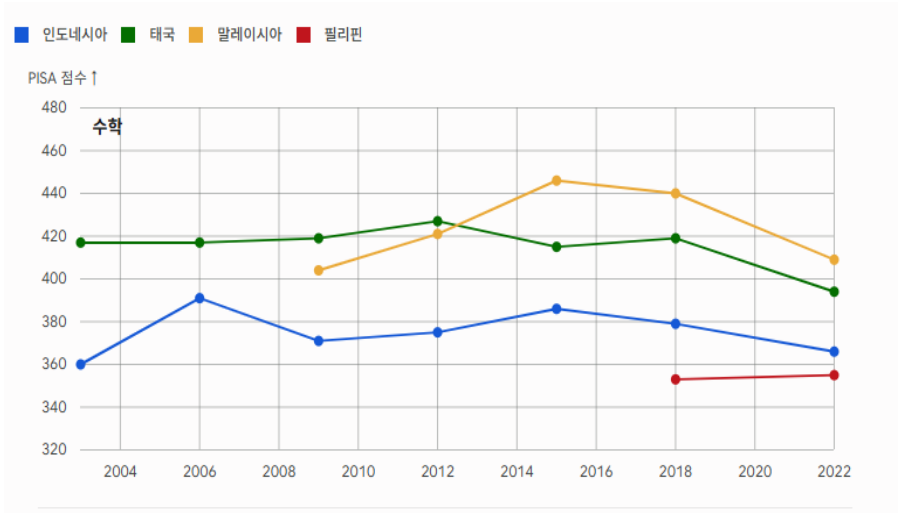
	수학 (등수)	과학 (등수)	읽기 (등수)	비고
2003	360점 (38위)	395점 (38위)	382점 (39위)	41개국 참여
2006	391점 (50위)	393점 (50위)	393점 (48위)	57개국 참여
2009	371점 (61위)	383점 (60위)	402점 (57위)	65개국 참여
2012	375점 (64위)	382점 (64위)	396점 (65위)	65개국 참여
2015	386점 (63위)	403점 (62위)	397점 (64위)	72개국 참여
2018	379점 (73위)	396점 (71위)	371점 (74위)	79개국 참여
2022	366점 (70위)	383점 (71위)	359점 (67위)	81개국 참여

출처: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pisa-scores-by-country>

(검색일: 2026년 6월 4일).

-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학생의 60% 이상이 “하위권(Level 1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수학의 경우 최소한의 실생활 계산과 해석이 가능한 “최소 성취 기준(Level 2)”에 도달한 학생이 18%에 불과하다(OECD 평균: 69%).

<그림 3> 역대 PISA 수학 성적 동남아시아 국가 간 비교



출처: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pisa-scores-by-country>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검색일: 2026년 6월 4일).

- 이에 따라 최상위권(Level 5~6)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 과목 통틀어 사실상 0%에 가까우며, 전체적인 학력 스펙트럼이 하위권에 집중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 TIMSS와 PISA 같은 공신력있는 국제적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조코위 정부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독립 커리큘럼이 전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교사역량 강화등 학습 인프라 조성에 대대적인 투자에 착수하였다.

- 그러나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무상급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2024년) 이후 상대적인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한국의 정책적 과제와 연결된다.

○ 프라보워 정권의 학생 무상급식 사업 실시

- 2024년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정부는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45년 인도네시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황금의 인도네시아 (Indonesia Emas)’ 구상을 정부의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 프라보워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네 개(학생 무상급식, 학교 인프라 개선 및 우수학교 건립, 공립학교 교원 임금 인상, 장학금 및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가 교육 관련 정책이며, 이 중에서도 학생 무상급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 학생 무상급식은 전국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임산부 등 약 8천만 명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상 점심 급식과 우유 제공을 주된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과 영양 상태를 해결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프라보워 정부는 출범 직전 국가영양위원회(BGN)를 설립하고 2026년 기준 약 335조 루피아(한화 약 28조 5천억 원)

를 투입하여 약 6천2백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보고르 농과대학교 교수이자, 전임 조코위 정부와 관련이 깊던 다단 힌다야나(Dadan Hindayana)이며, 곤충학자인 그가 임명되자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취임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 무상급식 사업은 뿌라보위 정부의 1호 공약인 무상급식의 순조로운 시행은 70% 가까운 뿌라보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을 비롯한 대외적인 악재와 더불어 무상급식 사업 내부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 우선 무상급식이 충분한 준비 없이 정부 출범 직후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조리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의 급식센터에서 조리한 급식을 배송하는 체계로 인해 배송과정에서 급식이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초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34,000명이 식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
- 더욱이 각 지역 내 급식센터 계약 및 자재 납품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졌는데, 일례로 오토바이, 태블릿 PC, 수건, 구두솔 등 급식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수의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식센터 개소식에 불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 이 와중에 국가영양위원회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 끼 당 15,000루피아로 책정되었던 급식 예산을 10,000루피아로 크게 줄였으며,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토요일 급식이 중단되거나 급식센터 신규 건설 계획이 연기되자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 여기에 “하루에 우유 2리터를 마시면 키가 185cm까지 크다”와 같이 잇따른 비과학적인 실언을 하던 힌다야나 청장이 지난 6월 초 사우디 방문 당시 사우디 제다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제 학교 학생에도 무상급식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뿌라보위를 비롯한 권력 핵심부는 크게 분노하였다.
- 결국 뿌라보위 대통령은 힌다야나 청장이 사우디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인 6월 7일 힌다야나 청장과 소니 손자야(Sony Sonjaya) 부청장을 포함한 국가영양위원회 주요간부들의 부정 행위 징후(Indikasi penyelewengan)를 보고받은 즉시 그들을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은 의뢰 당일 그들을 구속하였다.
- 문제는, 무상급식의 정책 집행자들의 엄격한 처분을 통해 반부패 및 개혁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던 뿌라보위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현직 정권의 핵심 엘리트가 연루된 대규모 부패스

캔들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가영양위원회 전 부청장인 소니 손자야는 체포 직후 검찰청에 사범협조자(폴리바게너) 자격을 신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대신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택하였는데, 소니의 변호인은 소니가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개입한 전현직 입법부와 행정부 핵심인사 26인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 급식센터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힘으로써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 뿌라보위는 6월 8일 부패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전직 기자 출신 부청장 나닉 데양(Nanik Deyang)을 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빠른 조직 개편 과정에 착수하였으나, 신규 급식센터 착공 및 준공이 연기되는 등 현재도 부패 사건의 여파는 진행 중이다.

☐ **고등교육 정책 및 이슈**

- 교육예산의 대폭 감소로 인한 부작용 확산
 - 1945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체계의 재원을 조달하고 이 체계를 마련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교육예산 책정에 있어 사실상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재무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교육관련부처인 초중등교육부, 고등교육부, 종교부의 예산 수요를 번번히 무시하는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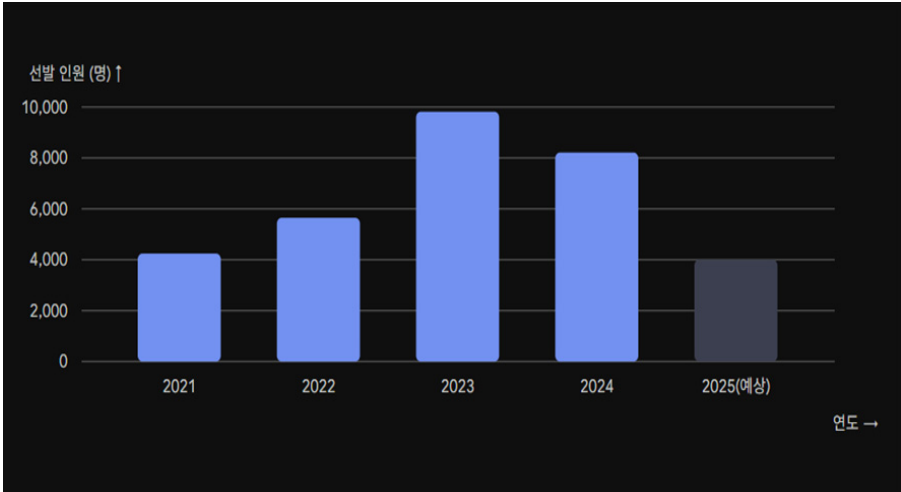
비일비재하며, 최근에는 초중등교육부와 고등교육부의 분리로 인해 교육부처간 예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사실상 뿌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첫해와 다름없었던 2025년과 이듬해인 2026년 인도네시아의 교육예산은 각각 724조 루피아(한화 약 61조 8천억원)와 758조 루피아(한화 64조 7천억원)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8.9%와 9.8% 증가하였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1년 무상급식 예산이 300조 루피아 이상 책정되고, 이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제외한 교육예산은 2020년의 교육예산(438조 루피아, 한화 약 37조 4천억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 더욱이 2025년 대통령령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한 우선순위 정책 시행을 위해 이른바 ‘낭비성’ 예산 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교육부문은 직격탄을 맞았다.
- 예를 들어 국공립대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비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50% 강제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워크샵, 해외시찰과 현지연구와 같은 학술행사들도 대폭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 또한 정부는 각 국립대에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예: 등록금)의 계좌 40~50%를 동결시켜 정부가 다른 국가사업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의 현안이었던 더욱이 학교시설 개선, 장학금 지급, 교원 처

우 개선과 같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제로 그 부작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기금관리청(LPDP)이 주관하는 저소득층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정부 장학생의 수는 2023년 9,358명이었으나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25년 4,000명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 더욱이 고등교육부에 할당된 예산 중 약 14조 3천억 루피아(한화 약 1조 2천200억 원)가 강제 삭감되면서 여러 국립대에서 연구실 운영 차질, 비정규직 교원 해고 및 신규 임용 중단 등이 일어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존에도 문제가 되었던 고학력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림 4> 최근 5년간 교육기금관리청(LPDP) 장학생 선발 현황



출처: <https://www.detik.com/edu/beasiswa/d-8114478/penerima-beasiswa-lpdp-2025-2026-dib-atasi-begini-alasannya> 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 양질의 교사 및 교사 양성 기관 부족

-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도네시아의 교육은 꾸준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교육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그 경쟁성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학업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더욱이 이러한 부진한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된 자바지역보다 비자바지역에서 두드러진다.
-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1) 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2)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교사의 질에 기인한다.

- 먼저 국공립 이슬람 학교와 현대적인 교육인프라를 갖춘 사립 이슬람학교와는 달리 여전히 끼야이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뿐독 뽀산뜨렌(pondok pesantren)에서는 각 과목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종교 교육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다.
- 더욱이 국공립 학교에서도 특히 비자바 지역에서 국가에서 공인된전문 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인도네시아는 사범대/교육대학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한국과는 달리 전국 대학교에 편재된 교육대학(Lembaga Pendidikan Tenaga Kependidikan) 졸업생들이 추가적으로 교사 전문성 교육 과정(Pendidikan Profesi Guru)을 통해 실무 교육을 이수한 다음, 최종적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교육자 자격증(Sertifikat Pendidik)을 받을 수 있다.
- 문제는, 이러한 검증된 교육인력이 자바지역은 물론이고 비자바 지역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표 4.c.1(교육단계별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의 비율)을 충족하는 교사의 비율이 유치원 3.2%, 초등학교 34.9%, 중학교 36.9%, 고등학교 37.4%에 지나지 않는다(참고: 전 세계 평균 84.5%).
- 턱없이 부족한 검증받은 교육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교장의 재량하에 각 지역의 대학졸업생, 심지어는 대학교육과는 거리가 먼 지역 청년들을 임시교사(guru honorer)로 채용하

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

- 이러한 무시협교사 누적의 결과는 낮은 교육의 질로 직결되는 바, <그림 5>에서 보여주듯이 전국 교사들의 강의과목의 전공 지식을 매년 살펴보는 교사역량평가(Ujian Kompetensi Guru)의 전국 평균이 불과 56.59점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북말루쿠, 말루쿠, 아체, 파푸아를 비롯한 비자바지역은 50점에 미달하였다.
- 더욱이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낮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적되어오자, 조코위 정부는 독립 커리큘럼의 도입을 비롯한 일련의 교육개혁에 착수하였으나,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 계발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전문교육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현 뿌라보위 정부의 교육 행정 재정 부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5> 인도네시아 교사 역량 평가(2015년 기준):
상/하위 10개 지역 비교

하위 10개 지역



상위 10개 지역



출처: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교원 및 교육인력 총국 (2016)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 한국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분야	협력 제안	구체 사업
초·중등 교육	안전하고 저렴한 학교 급식 시스템 전수	- 인도네시아 농촌 지리적 환경에 맞춘 한국의 농촌 학교 급식 모델 규격화 및 전수 - 도시 지역 급식 이동 시 위생 확보를 위한 콜드체인(Cold Chain) 시스템 기술 지원
초·중등 교육	만성적 저학력 문제 개선 및 인프라	라디오 및 TV 원격 강의 보급을 통한 보충 학습 기회 제공

	확충	• KOICA 등과 협조하여 비자바 지역 교육시설 개선 • 교사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교수법 향상 • 장학금 제공 및 한국 초청 프로그램 활성화 • AI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도우미 제공 • 한국 대학(-IST) 모델 이식
고등 교육	10개 우수 연구중심대학 설립 지원	• 신규 설립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위제도 컨설팅 • 첨단 기술 및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학위제(Joint Degree) 운영
고등 교육	국가 엘리트 공무원 대학교 설립 지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성공적인 행정·정책 인재 육성 커리큘럼 전수
고등 교육	청년 실업 및 인력난 동시 해소	• 한국 대학의 '계약학과 모델'을 현지 대학에 이식 • 해당 학과 졸업생을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 및 본사로 채용 연계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제도의 인도네시아 쿼터 신설
고등 교육	차세대 학자 및 핵심 연구 인력 육성	• 우수 인재의 현지 대학 핵심 교원 정착을 위한 한-인니 주요 대학 간 공동 연구 및 박사후연구원(Post-Doc)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초·중등교육 분야 협력 내용 및 정책 제언

- 뼈라보위 정권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전면 실시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재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한 나머지 연쇄 식중독, 부실 메뉴, 고질적인 부패로 인한 비용 낭비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더욱이 연간 30조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무상급식 프로그램

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사실상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질적인 학력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한-인도네시아 관계에 부합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세계적으로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학교급식 시스템을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풍부한 식재료를 가급적이면 산지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단가를 낮추면서도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상황에 맞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농촌과 격오지가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의 농촌 학교 급식 모델을 규격화하여 전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학교 급식 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다.
- 한편, 초등고생의 만성적인 저학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교류 방안으로는 1)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원격 강의 보급을 통한 보충 학습 기회 제공 2) KOICA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비자바지역) 교육시설 개선 3) 교사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교수법 향상 4) 장학금 제공 및 한국초청 프로그램의 활성화 5) AI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도우

미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고등교육 분야 협력 내용 및 정책 제안

- 뿌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 방한하여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한국의 우수한 고등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전국에 10개 우수 연구중심대학 설립에 도와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이러한 요청은 무상급식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교육예산 감축의 후폭풍으로 대선 당시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공무원 전문 양성 대학교 설립을 포함하여 의학과 기술(STEM)에 특화된 세계적 수준의 10개 대학을 2028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결과로, 영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 정상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한 바 있다.
- KF-21 공동개발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공동투자사업이 확정되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재협상 과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사례들이 있는바, 이번 대학설립 지원 요청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특히 현지언론에 뿌라보워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현격히 낮은 점은 “한번 제안이나 해보자”는 식의 접근일 수도 있는바,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과 재정

부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우선 카이스트(KAIST)와 포스텍(POSTECH), 그리고 각 지역별 기술원등 세계적인 수준의 이공계 및 의학 연구 중심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사정상 1) 한국 대학의 인도네시아 분교(Branch Campus) 설립 2) 신규 설립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위 제도 컨설팅 3) 공동 학위제(Joint Degree) 운영을 통한 첨단 기술 및 의료 인력 양성 사업 참여 등이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 또한, 빼라보워 정부가 구상 중인 국가 엘리트 공무원 대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의 KDI 국제정책대학원이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성공적인 행정·정책 인재 육성 커리큘럼을 전수할 수도있을 것이다.
- 한편,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계약학과 모델을 기존 인도네시아 대학에 이식하여 학과 졸업자들을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나 한국 본사로 채용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원-원(Win-Win)’ 구조를 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제도의 인도네시아 쿼터를 늘려 차세대 학자들을 육성하고, 이미 한국의 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우수 인재들이 귀국 후 주요대학의 핵심 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인니 주요 대학 간 공동 연구 및 박사후연구원(Post-Doc)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